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품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성문교회 70번째 이야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뜯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불드시리

(“여정” 연동언 찬양 중)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동역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가정과 교회는 동역자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매순간 감사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노숙인으로 처음 만났고 코로나때 한번 예배 나오시곤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그분이 주일예배에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등록도 하셨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그분은 지금 일용직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일을 나갈 때 제외하고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며 적응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직은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만지시여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야간) 함께 수업듣는 동생이 남원에 살다가 순천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성문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이사짐 정리와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선뜻 주일에 나오는 것이 버겁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이 얼마쯤 지난후 학교 친구와 동생이 주일예배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고 이후 동생만 주일에 나오고 있고 평일에도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때론 주일에 시댁방문으로 인해 나오지 못할때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며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순별모임, 기도회

주일 오후 시간에는 그룹을 나누어 오전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들은 본문을 각자의 삶으로 적용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모두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눔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또한 은혜를 찾습니다.

매달 첫째주 오후에는 전체 기도회를 하는데 아직 기도에 미숙한 이들도,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힘들어 하는 어르신 성도님과 아이들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이니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찬양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추석)

추석을 맞이하며 주일 오후에 성도님들과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반달 송편을 만들고 아이들은 꽃송편, 토끼송편, 강아지 송편 등 각자가 원하는 모양들을 만들며 즐거워했고 어느 집사님은 크게 먹고 싶다고 납작하게 호떡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별로 큰 찜솥에 차근차근 찌서 달콤한 송편을 먹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 위해 한점시씩 포장도 해서 가셨습니다. 준비하고 치우는 일이 조금 버겁긴 했지만 성도님들이 모두 좋아하시니 행복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대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마산 로봇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조금 힘들어하기 했지만 한 사람도 짜증내지 않고 프로그램들을 즐기며 활동했습니다. 몇몇 선생님과 어른들은 다행히 건물 안에 시원한 휴게소가 있어서 아이들 짐을 지키며 서로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케어 했습니다. 땀과 물이 범벅된 옷과 얼굴에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함께하는 모두가 즐겁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된 '설하'

새 가족이 된 설하가 '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낯설어 많이 울고 불안해 하더니 어느새 교육관을 누비며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다른 또래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와 평일에도 자주와서 그런지 목사님과 나에게도 이젠 제법 잘 안기고 웃어줍니다. 설하가 교회 안에서 몸과 생각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교회학교 안에서 믿음으로 잘 커나가길 기도합니다.



성경퀴즈

마지막째 주 오후에 전체 성경퀴즈대회를 했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문제로 열심히 공부해 오셔서 당일에 적극적으로 임한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조별로 진행했는데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열정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1등은 가족으로 구성된 조 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추셔서 몇 문제는 다른 조를 위해 쉼을 주기도 했습니다. 1등 2등 3등은 조금 좋은 선물을 가져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참가상으로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쉬움 없이 즐겁게 성경퀴즈대회를 하였고 어느 분은 수능공부하듯 준비했다는 말로 웃음 꽃을 피워주기도 했습니다.

성경퀴즈대회 이후로 전교인 신약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1등을 달리는 분들과 계시고 아직 마태복음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어 내려가는 성도님들의 하루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넷째 임신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조금 늦은 나이에 넷째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임신으로 가정과 교회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고 8개월쯤에 조산 위험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위험 신호로 인해 다니던 야간학교도 휴학하며 쉼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불안함이 아닌 더 많은 감사와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예배당과 교육관 청소를 토요일에 저와 아이들이 했었는데 조산 위험 소식을 들은 성도님이 매주 아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당을 반짝반짝 청소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손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예배당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문교회가 되고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기에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가정이 믿음의 이 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영육의 건강함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써 내려간 저희 사역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1. 교회 일한 일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차량봉사자, 교사, 전도일꾼, 찬양사역자, 주방봉사..)
2. 교회가 유지(운영) 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자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성도들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3. 교회 등록한 새 신자들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양육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말씀훈련(구약/신약 성경 읽기), 기도훈련(매월 첫째 전체 기도회), 소그룹모임(주일 오후), 주중모임(1대1 양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목회자(허리, 혈관질환)와 사모의 건강(넷째 출산 준비 중 - 10월 말 예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